

유두석 장성군수 부인, 휴일 ‘과잉 의전’ 논란

삼일절 백양사에서 열린 민주당 행사에 공무원 수행 받아
 이청 “공식 자리로 코로나 격리된 군수 대신 참석한 것”

유두석 장성군수 부인인 이청(전 장성군수) 씨가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행사에 공직자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에 의하면 ‘행사 당일 휴일인데 공직자들이 쉬지도 못하고 수행한 것은 과잉 의전이다’는 지적이다. 이청 씨는 지난 3월 1일 백양사에서 열린 민주당 행사에 참석했다. 당시 이 씨는 장성군 주민복지과 팀장의 차량을 이용해 주민복지과장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다.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백양사의 국경 반영 사항을 민주당에 건의하는 자리였다. 당시 행사장에는 장성군청 ▲행정복지국장 ▲총무과장 ▲북하면장 ▲문화예술팀장이 참석, 총 6명의 공무원이 자리하고 있어 군수 부인에 대한 ‘과잉 의전’이라는 지적이다. 행사에 참석했던 A 씨는 “군수 부인이 6명의 공무원의 의전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며 “공무

원들도 쉬는 날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군수 부인이 움직인다고 다수의 공무원이 의전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성군 행정복지국장은 “군수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이라 국립심뇌혈관센터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간 것이다”며 “총무과장이 문화예술팀장으로 인사 전 근무를 해 백양사 관계자를 잘 알기 때문에 함께한 것으로 군수 부인 의전과는 상관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유 군수의 부인인 이청 씨를 수행했던 팀장은 “평소 도지사나 국회의원 부인이 오면 관례적으로 수행을 해왔다”며 “당일에도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온다고 해서 간 것이다”고 말했다. 또 “행사가 있기 전 사모님에게 알렸고 함께 갔다”며 “개인적인 일을 볼 때는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청 씨는 “군수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유두석 장성군수 부인인 이청(검정색 코트)씨 뒤를 따라 주민복지과장과 총무과장이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제공 계보자)

돼 있어서 대신 참석한 것이다”며 “코로나로 인한 격리가 아니었다면 함께 참석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2명이 수행한 것은 맞지만 다른 공무원들의 참석 여부는 알지 못했다”며

“평소 혼자 이동하지만 공식 행사라 그런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행사에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재범 기자**

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사회재난 역대 열번째
 정부 세 번째...산불로 네 번째

정부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관련기사 9면)**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같이 선포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여기서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해상사고, 화재방사,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한 재난을 말한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감염병·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도 해당된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이자 역대 열 번째다. 2020년 3월15일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사상 처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이후로는 약 2년 만이다.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역대 네 번째이며, 2019년 4월17일 강원 등해안 산불 이후로는 2년11개월여 만에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7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재정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구호비가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 총 29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외국인도 지원 대상이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류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제외된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외 강릉·동해 등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호남, 역대급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李·尹 누가 유리?



유례 없는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20대 대선 사전 투표 결과, 광주와 전남 등 호남이 전국 및 역대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간 후보단일화가 대선전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강 후보 캠프는 유·불리를 계산하느라 분주한 상황에서 각각 “우리가 유리하다”며 신경전도 펼치고 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5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한 결과 전남은 선거인 158만1278명 가운데 81만3530명이 투표를

마쳐 최종 51.4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최고 투표율이다. 광주는 선거인 120만9206명 중 58만3717명(48.27%)이 투표했다. 특·광역시 중 가장 높고,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는 전남, 전북(48.63%)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다. **尹·安 단일화 최대 변수 속 사전 투표율 전남-전북-광주 1~3위**
민주 “원칙없는 야합 후보단일화 역풍, 분노·위기의식이 표 결집”
국힘 “젊은층·尹지지자 투표 참여 열기 높아, 여권 몰표는 없다”
 이는 2017년 19대 대선 광주 33.67%, 전남 34.04% 보다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2014년 도입된 사전 투표 이후 역대 지방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대선 사전투표율의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역대급 사전투표율은 초박빙의 대선전에

서 막판 윤·안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가 되면서 양강 후보 캠프측의 사활을 건 투표를 높이기 경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상당수 유권자가 오는 9일 본투표보다 사람들이 덜 몰리는 사전투표를 선택한 데 따른 결과로도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역대급 투표율에 대해 “우리가 더 유리하다”며 각각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사전 투표율은 호남 표심의 바로미터로 호남 출신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강 정당은 사전 투표율 분석을 통해 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투표율과 관련해 윤석열·안철수 후보간 후보 단일화에 대한 역풍을 강조했다. 민주당 송갑석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안철수 후보간 원칙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야합 후보단일화에 대한 지역민의 분노와 위기의식이 표결집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역대급 투표율이지만, 과거처럼 여권의 몰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송기서 광주 총괄선대위원장은 “코로나 19 여파와 양당의 투표율 제고 노력 등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본다”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견인한 2030 젊은층들과,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 열기가 높아 여권이 주장하는 몰표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